

2019년 6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실적 개선 기대 종목 위주로 상승 철강, 물류, 항공업종이 상승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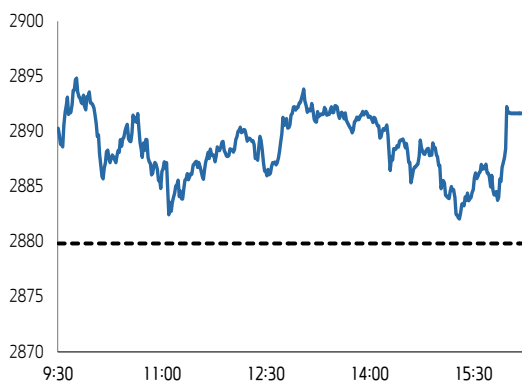
실적에 주목하는 시장 참여자들

미 증시는 다음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 특히 에너지, 항공, 철강, 물류회사를 비롯해 디즈니 등이 상승 주도. 다만, 이란과 미국간 마찰, 유럽 정치 불확실성 등은 상승폭은 제한(다우 +0.39%, 나스닥 +0.57%, S&P500 +0.41%, 러셀 2000 +1.05%)

다음 주 18 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향한 출정식이 준비되어 있음.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정책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 특히 미-중 무역협상 및 북미 관계 등 외교적인 부분을 비롯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중요. 발언 내용에 따라 시장 방향성과 이를 주도할 업종이 나올 수 있음. 더불어 19 일에는 FOMC 결과가 발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음. 그러다 보니 시장은 이러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주변 요인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경향을 보임.

오늘도 중국 류허 부총리가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하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철강협회가 미국 철강부문 가동률이 81.5%를 기록해 전년(76.7%) 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철강업종이 상승.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 항공운임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가 높아진 항공 업종, 의료 유통에 대한 투자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물류회사 등도 상승. 반면, 미국 주간 철도운송량이 감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철도회사들이 부진했고,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산업을 두고 명암이 엇갈렸음. 이렇듯 시장 참여자들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주변 이슈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주목하며 등락을 보이는 등 종목 장세가 이어짐. 한편, 팩트셋은 2 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 1 분기(yoy -0.3%)에 이어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실적 변화 요인에 시장 참여자들은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103.15	-0.27	홍콩항셱	27,294.71	-0.05			
KOSDAQ	726.68	+0.33	영국	7,368.57	+0.01			
DOW	26,106.77	+0.39	독일	12,169.05	+0.44			
NASDAQ	7,837.13	+0.57	프랑스	5,375.63	+0.01			
S&P 500	2,891.64	+0.41	스페인	9,247.10	+0.09			
상하이종합	2,910.74	+0.05	그리스	850.37	+0.79			
일본	21,032.00	-0.46	이탈리아	20,630.75	+0.8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물류, 항공업종 강세

엑손모빌(+0.88%), EOG리소스(+1.72%)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다. UPS(+1.61%), 페덱스(+2.66%)는 DHL이 미국 의료 유통 사업 확장을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자 관련 산업의 확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속에 상승했다. 아메리칸 항공(+6.40%), 유나이티드 항공(+3.96%), 사우스웨스트 항공(+3.09%), 델타항공(+1.93%) 등은 운임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유니온퍼시픽(-2.38%) 등 철도회사들은 주간 철도 교통량이 8.5%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월트디즈니(+4.44%)는 모건스탠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상승 했다. 넷플릭스(-0.62%)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타이슨푸드(+0.78%)는 완전 채식 제품을 출시하자 상승 했다. 반대로 비욘드 미트(-0.41%)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한편, 트위터(-3.07%)는 목표주가 및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US스틸(+3.78%), AK스틸(+4.37%) 등 철강업종은 실적 개선 기대 및 중국 경기 부양 정책 확대 기대로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33%	대형 가치주 ETF(IVE)	+0.67%
에너지섹터 ETF(OIH)	+3.74%	중형 가치주 ETF(IWS)	+0.68%
소매업체 ETF(XRT)	+1.22%	소형 가치주 ETF(IWN)	+0.96%
금융섹터 ETF(XLF)	+0.33%	대형 성장주 ETF(VUG)	+0.52%
기술섹터 ETF(XLK)	+0.30%	중형 성장주 ETF(IWP)	+0.4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2%	소형 성장주 ETF(IWO)	+1.22%
인터넷업체 ETF(FDN)	+0.50%	배당주 ETF(DVY)	+0.45%
리츠업체 ETF(XLRE)	+0.1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1%
주택건설업체 ETF(XHB)	+1.7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3%
바이오섹터 ETF(IBB)	+0.75%	미국 국채 ETF(IEF)	+0.25%
헬스케어 ETF(XLV)	-0.12%	하이일드 ETF(JNK)	+0.20%
곡물 ETF(DBA)	+0.12%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0.50%	Long/short ETF(BTAL)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0.81	+1.25%	+0.66%	-4.37%
소재	362.68	+0.58%	+1.68%	+6.93%
산업재	635.39	+0.54%	+0.82%	+0.71%
경기소비재	933.63	+0.90%	+3.81%	+1.73%
필수소비재	602.65	+0.11%	+1.58%	+2.11%
헬스케어	1,055.35	-0.11%	+1.74%	+3.87%
금융	449.39	+0.23%	-0.03%	+1.37%
IT	1,342.19	+0.22%	+2.57%	+1.83%
커뮤니케이션	160.57	+1.14%	+2.49%	-2.07%
유틸리티	303.00	+0.15%	-0.59%	+3.12%
부동산	231.49	+0.09%	+0.48%	+2.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54% MSCI 신흥 지수 ETF는 0.17%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0.60pt 상승한 270.20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2.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실적 개선 요인들이 유입된 물류, 철강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강세도 미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결국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매에 국한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관련 이슈는 선부른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분쟁에 초점을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기 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인 대응에 국한된 종목별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KOSPI200 12개월 Fwd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155조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215조원에서 크게 하향 조정되었으나, 5월 이후에는 현재 수준에서 멈춘 상태다. 결국 한국 기업이익 둔화가 멈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분기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기업이익 상향 조정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된 업종은 조선(+19.1%)이며 그 뒤를 IT 하드웨어(+6.7%), 건강관리(+5.1%)를 비롯해 증권, 비철금속, 자동차, 화장품 등도 상향 조정되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산업생산 둔화 지속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21만 9천건)이나 예상치(21만 6천건)를 상회한 22만 2천건을 기록했다. 4주 평균 신청건수도 지난주(21만 5,250건)보다 소폭 증가한 21만 7,750건을 기록했다.

5월 미국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0.7% 감소했고, 수입물가도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5% 감소되었다.

유로존 4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감소해 지난달 발표치(mom -0.4%)나 예상치(mom -0.4%)를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후 상승분 일부 반납

국제유가는 지난 5 월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2 척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공격에 이란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해 미국과 이란간 마찰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상승 요인 이었다. 더불어 아베가 이란을 방문해 미국과의 마찰을 완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란 지도부는 즉각적으로 반대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OPEC 은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5 월 산유량이 전월 보다 하루 23 만 6 천 배럴 감소한 2,988 만 배럴이라고 발표 했으나, 올해 원유 수요 증가량을 하루 114 만 배럴 증가로 소폭 하향 조정 했다. 국제유가는 장중 4% 넘게 급등 하기도 했으나, 수요 부진 우려속에 매물이 출회되며 2.2% 상승으로 마감 했다.

달러화는 파운드화 유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FOMC, G20 회의를 앞둔 점도 강세 요인이었다.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 총리 선출을 위한 1 차 표결에서 1 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를 보였다. 비록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 했으나, 그동안 브렉시트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유로화는 이탈리아 재정을 둘러싸고 EU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제채권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2 대의 유조선에 대한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입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30 년물 국제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27 배)를 상회한 2.32 배를 기록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유입으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영향으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07%, 철근도 0.50%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28	+2.23	-0.59	Dollar Index	97.053	+0.05	+0.01
브렌트유	61.31	+2.23	-0.58	EUR/USD	1.1274	-0.12	-0.02
금	1,343.70	+0.52	+0.07	USD/JPY	108.38	-0.11	-0.02
은	14.892	+0.94	-0.09	GBP/USD	1.2676	-0.10	-0.14
알루미늄	1,787.00	-0.17	+0.62	USD/CHF	0.9942	-0.13	+0.30
전기동	5,858.00	+0.10	+0.86	AUD/USD	0.6914	-0.20	-0.90
아연	2,477.00	-1.28	-1.04	USD/CAD	1.3334	-0.07	-0.21
옥수수	455.75	+1.62	+3.93	USD/BRL	3.8586	-0.24	-0.57
밀	539.00	+1.51	+4.81	USD/CNH	6.9331	+0.07	+0.09
대두	888.00	+1.14	+2.22	USD/KRW	1183.10	+0.04	+0.38
커피	99.75	-1.72	-4.64	USD/KRW NDF1M	1182.10	-0.12	+0.3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091	-2.95	-2.64	스페인	0.540	-3.10	-6.70
한국	1.627	+2.50	-2.30	포르투갈	0.639	-1.30	-2.80
일본	-0.113	-0.20	+0.70	그리스	2.689	-5.00	-20.90
독일	-0.241	-0.50	-0.20	이탈리아	2.354	-7.70	-13.20